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5)

美 프랭크 오스타세스키

“보살행은 죽음마저 이기게 해요”

미국의 불교사자이자 트리사이클지의 편집위원 스티븐 레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단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간병인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프랭크 오스타세스키가 설립한 불교간병인협회”라고 밝혔다.

“불교간병인협회” 회장 프랭크 오스타세스키(Frank Ostaseski)는 여느 불교 실천운동가와는 달리 서구의 정규교육을 받은 미국인으로서 ‘보시공덕’의 한 방편인 간병활동을 전개해 미국에서 주

재세(在世)시대에 오늘날처럼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설법을 듣는 군중들 가운데에서 에이즈 감염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에이즈 환자도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1992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6년동안 간병활동을 벌여온 간병인단체를 해체하고 불교간병인협회(Zen Hospice Project)를 설립했다. 현재 미·



약 력

- 1960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
 - 1968 캘리포니아대 수학
 - 1973 동남아 불교교 성지순례
 - 1975 잭 콘필드와 ‘명상공동체’ 설립
 - 1987 ‘간병인단체’ (The Victory of House) 설립
 - 1992 ‘불교간병인협회’ (Zen Hospice Project) 설립
- 저서로는 <불멸의 사랑>(An Undying Love) 등이 있다.

불교간병인협 설립 국제적 활동 에이즈·암환자등 10만여명 돌보

목받고 있는 불교실천운동가이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수학했던 23세 전후부터였다. 캘리포니아에 들어선 샌프란시스코의 만(灣) 지역은 미국에서 불교관련 학술·문화행사 빈번히 열린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화상시절을 보냈던 그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동양의 고대 정신문화를 향유했다. 또 1973년부터 동남아 불교국의 성지순례를 시작해 여행을 통해 범신론적 바라문 사상의 정제(正系)인 베단타(Vedanta)와 불교 등을 배우고 불제자로 성숙해졌다.



○ 샌프란시스코의 라구나 혼다(Laguna Honda)병원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이 병원에서는 불교간병인협회 소속 28명의 간병인이 지원 봉사하고 있다.

이후 그는 잭 콘필드(Jack Kornfield)와 함께 명상공동체(美, Meditation Society)를 설립해 본격적인 명상수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명상수행에 정진하는 동안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기에 겪은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죽음’과 ‘죽어가는 것’을 화두로 삼았고 간병인활동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소년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든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통받는 환자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동안 만큼은 사별(死別)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야 ‘죽음·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을 길은 보살행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됐다”고 오스타세스키는 말했다.

수년동안 남미(南美)계 망명자·거리 부랑자·무의탁노인들과 함께 지내며 이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사회적·정치적 운동에 전념한 그는 78년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후원을 받아 간병인단체(The Victory of House)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보시공덕’의 사상적 근간을 갖게 됐다.

이 단체를 설립했던 80년대는 에이즈(AIDS)가 한창 공포감을 자국하고 있었고, 에이즈감염자는 문명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랬듯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다. 오스타세스키는 “부처님

無常·無我 가르침 토대 간병활동 수행으로 승화 “소외감이 불치병보다 더 큰 고통...사회의식 계도”

獨·英 등지에 본부와 지부를 설치해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한 이 협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만도 1천5백여명의 ‘불교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성별·종교·민족 등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껏 10만여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곳 환자들은 대부분 에이즈(70%), 암(20%) 등의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전체 환자들의 65%는 연고자가 없다.

호스피스(Hospice)란 치유의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 호스피스는 간병인이 환자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불안·고독감 등을 완화시키고 최후의 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는 간병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병인의 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에서 불교

간병인협회가 주목받게 된 것도 간병인 지원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이들의 정신적·기능적인 소양을 성숙시켜 환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간병인들은 대다수 불교선원을 다니는 20세부터 75세까지의 불자들로 폭넓게 구성돼 있다. 이들 중에는 임상·간호·수술 등의 전문분야를 교육받은 사람도 있으며 은행원·법조인·사업가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스타세스키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돌봐주는 동안 우리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보살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며 여기에는 간병인과 환자의 위차는 없다. 오직 인간적인 친밀감이 있을 뿐이다”라며 간병활동을 불교수행으로가

지 승화시켰다.

협회교육을 이수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라구나 혼다(Laguna Honda)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마리안씨(美·58)는 “교육을 통해 자비심이 일게워지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 수 있었다”며 교육을 평가하고 “자비심이 바로 환자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쏟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으로 승화된 간병활동은 병마와 싸우는 환자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마련해 준다. “먹고 배설하는 것조차 간병인이 도와주고 있다. 간병인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며 스넬라(美, 52)는 따뜻한 간병에서 자비를 느꼈다고 말했다. 다섯 자녀를 둔 마가렛(美, 42)은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지면서부터 주변 사람

들이 신체적 접촉을 품시 꺼렸다. 심지어 자녀들조차 멀어졌다. 그러나 협회는 간병 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가족들의 선입관을 변화시켰다”며 병을 치유하는 의학적 조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까지 되찾아주는 호스피스의 활동에 고마워했다.

“부처님 가르침인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대하는 간병인에게 특별한 교훈을 준다. 왜냐하면 간병은 바로 생·노·병·사 중에서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을 돌봐주는 해를 깨닫게 해주며, 이를 통해 간병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타세스키씨는 왜 불자들이 간병활동을 해야 하는지 해답을 준다.

오종욱 기자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타심통(他心通) 다름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자유자재하게 아는 것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우스운 일이다. 내가 나의 마음도 잘 헤아리기 어려운데 남의 마음을 알고자 했으니 말이다. 하여튼 나는 ‘타심통’이라는 능력에 관심이 지대했다. 나는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병기공학(무기를 개발하는)을 공부했다는 인연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과 더불어 국과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83년부터 현재의 대학(건국대학교)으로 옮겼다. 대학으로 옮기니 시간이 한가롭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첫 여름방학에 과학기술원 동료교수의 소개로 통일교회가 주최한 3박4일간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리강좌를 들었다. 그러나 그 강좌전 내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타심통 같은 교리는 없었다. 그 후 밀교계통, 원불교 경전, 대순전경 등을 섭렵하였다. 그러한 긴 여정 끝에 석가모니부처

이재순 (숙명대학교수·기계공학) (上)



그래서 곰곰히 생각했다. 불교란 없는 이론을 새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법계에 있는 진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려준 것인데 어떻게 불교이론은 이렇게 어렵고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안되는가 하고 말이다. 이렇게 어려워져야 어떻게 불교를 믿겠는가?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야겠다고 발심했다. 사(事)적으로는 어렵지만 이(理)적으로는 왜 어렵느냐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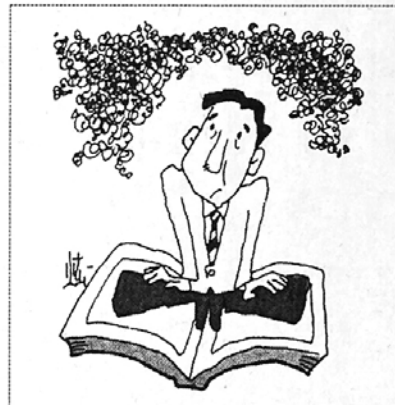
이러한 때에 각성(覺性)스님이 삼일선원에서 원인으로 강의를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삼일선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삼일선원에서 많은 것을 공부했다. 화업

“이웃에게 쉽게 불교전하자” 발심

여러종교 결론티후 비로소 최상진리 불법귀의

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

84년인가 집사(韓 法界藏)이 강단에 놓인선원이 개원되었다고 하면서 가보라고 하여 이 선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전광용 큰스님(직지사 조실)을 모시고 법화경 강의를 받았다. 인연설화를 섞어가면서 열심히 법문하셨는데 정말 신심



경, 기신론, 대학, 중용, 원인론, 능엄경 등. 어릴적 서당에 다닌 인연을 기억하면서 불교원점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3년에 걸친 능엄경 강의는 인상 깊었다.

과학도인 내게 능엄경은 정말 놀리정연하다고 느껴졌으나 ‘여래장의 묘진여성’이라는 구절에서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 됐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녔고 3기로 졸업하였다. 공부를 마치니 그 망망대해만 같던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형성되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왔다. 능인선원에 다니고 동시에 인연 용화사 송담스님의 법문도 빼놓지 않고 들었다. 송담스님은 초치일관 선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시심마(이렇고) 화두와 ‘취봉(翠峯)’이라는 법문도 받았다. 송담스님은 참선 수행, 호흡법뿐만 아니라 ‘황구참선’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이른날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하는 참선방을 찾게 되었고 사간동 법림사에 나가게 되었다. 참선방에 앉아서 정진한다고 하였지만 온갖 잡념과 씨름하다 돌아오곤 하였다.

그래서 다행히 방편으로 이근원통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이근원통(耳根圓通)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또 듣고 한 기억이 난다. 다른 근(根)은 전부 800근인데 눈, 귀, 마(舌) (제 64)은 1200근으로 눈은 광박광박 움직이고, 마음은 걸잡을 수 없지만 귀는 움직이지 않는지라 이근원통이 제일 수승한데 아주 소란한 역대합살 같은 곳에 가서는 듣는 눈을 뒤잡아서 도로 들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아주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여도 실제행이 되지 않아서 짜증스럽기까지 하였던 기억이 난다. 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해도해도 끝이 없다면 어쩌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 또 들었다. 막막하기만 한 무명을 풀기 위해 수행단체의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곤 하였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크기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권 불자의 집

▲ 크기 3.5cm×10.5cm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진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시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료번호 76266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